

썰록가공제 국산화 요원

20억수요 연 20~30% 성장 ... 응용분야 활성화

썰록가공제의 활성화로 썰록가공용 접착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썰록가공용 접착제가 자동차산업 등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신장률이 연 20~30%에 이르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0억원에 이르는 썰록가공제는 현재 자동차용 볼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가공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각종기계류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신규수요 창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썰록가공제 공급은 한국쓰리본드와 한국3M이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에 따라 상호병합해서 가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M은 한국코팅을 통해 연간 8억원상당의 썰록제를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쓰리본드도 90년부터 MEC 가공을 판매하고 있는데 93년기준 5억원상당의 가공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썰록가공제는 제품의 특성상 볼트 등 가공대상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기업이 직접 가공·판매하고 있는데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는 일부 제품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최근들어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일본의 쓰리본드 등 외국기업들은 꾸준히 국내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장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과의 경쟁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생산이 요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썰록가공제는 비스,볼트 플러그,파이프 등의 나사면에 마이크로 캡슐화된 고반응성 고착제를 특수가공하여 나사자체에 썰링과 록킹기능을 부여한 나사와 썰링제 록킹제를 일체화시킨 가공기술이다.

썰록가공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가정용 전기기기 뿐만 아니라 조선과 항공기, 포장기계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27>